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

1과

교회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

성경: 요 4:24, 6:63, 딤후 3:16, 고전 3:2a, 6, 9, 16, 벧전 2:2-5, 엡 5:25-27, 1:22-23, 3:8, 6:17-18

I.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본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의 실행은 성공하게 될 것이며 그 성공은 새로운 부흥-최고의 부흥, 아마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에 있게 될 마지막 부흥이 될 것이다.

A. 우리에게는 하나님-사람 생활을 사는 단체적인 본, 한 몸,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우리의 실행은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날마다 다른 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실재화함으로써 하나님-사람 생활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빌 3:10, 1:21, 갈 2:20.

B. 부흥은 항상 우리가 본 이상을 실행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들은 것을 실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본이 세워질 것인데, 이 본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될 것이다.

C.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영을 꺼뜨리지 않고 신언을 멸시하지 않음으로 그분을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실행하는데 신실히 노력해야 한다.

II.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합당한 방식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A.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1.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다—요 4:24.
2.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쉬신 것은 무엇이든지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본성 자체는 영이다-딤후 3:16.
3. 하나님의 말씀은 영 이신 하나님의 체현이며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담고 있다-요 6:63.
4.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상, 계시, 가르침, 교리를 접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본질 곧 그 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접촉하는 문제이다.

B.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

1.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기능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의 영양분으로 넣어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데 사용하는 수단이다-요 6:63, 벧전 2:2-3, 비교 엡 3:17a, 골 3:16
2.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단지 이해하고 알고 배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리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기 위해 말씀을 대해야 한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찬송(영한동번) #814, #816

C.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숨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이마시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길이다—딤후 3:16

D.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말씀을 들이마셔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이다-엡 6:17-18

III.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뿐 아니라 원수를 패배시키고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다.

A.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영양공급받도록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1. 몸은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어떠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에 전달된다－엡 1:22-23.
2. 교회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영양공급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다—3:8, 5:29.
3.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몸에게 영양공급하신다－딤전 4:6, 벧전 2:2:
   a. 몸이 영양공급을 받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한다. 즉 영 안에서 살아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양공급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다－엡 6:17-18.
   b. 기도로 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고 차지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되고 서로와 하나될 것이다－골 3:16, 엡 3:17a.

B.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점과 주름에서 정결하게 되어 주님을 만족시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5:25b-27, 찬송(영한) #1310.
1. 점들은 타고난 생명에 속한 것이고 주름은 낡음에 관련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세기 동안의 교회 역사로부터 생긴 점들과 주름을 갖고 있다－5:27
2. 우리의 타고난 존재의 점과 주름은 오직 내적인 생명의 물 곧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물에 의한 신진대사적인 씻음에 의해서만 없앨 수 있다－5:26
3.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교회에게 영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음으로써 교회는 새롭고 신선하게 된다.

C.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장비될 수 있게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엡 6:17-18
1. 에베소서 6:17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검이 그 영이고 그 영이 말씀임을 가리킨다.
2.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읽음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검인 그 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영양공급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무기도 된다－5:18
   a. 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로 읽음을 통하여 원수를 패배시키신다. 왜냐하면 기도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자아와 관념과 다른 의견들은 종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된 승리인데 주님이 직접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장비되어 전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승리이다.
   b. 이런 식으로 장비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손에 검이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그 검에 의해 죽임당한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록 읽을수록 더욱더 주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신다.

D. 건축된 제사장 체계 곧 제사장 무리를 실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벧전 2:2-5
1. 구약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 직분의 견습생은 25세가 되어야 하고, 온전한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 한다(민 8:24, 4:3). 이것은 제사장으로 섬기려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새로 난 아기들인 우리는 자라기 위해 말씀의 젖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기도로 더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과 건축되고 동역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참된 제사장 체계, 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벧전 2:2.

몸의 건축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 안에서 성장함

바울은 고린도전서 3 장 2 절에서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젖과 단단한 음식은 거듭난 믿는 이들이 성장하기 위한 공급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2 절과 관련하여 6 절에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는 생명으로부터 단순한 지식과 가르침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심는 것이었고,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게다가 아볼로는 물을 줌으로 성도들을 도왔는데, 이것 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 결국 자라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 자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일 수도 있다. 우리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온전케하는 것에 관한 낡은 관념들을 버리고, 심고, 물 주고, 자라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를 고려하지 말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생명 씨와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으로 심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명 안에서 적셔졌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집에서나 집회에서나 반복해서 적셔져야 한다. 심고 물을 준 뒤에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자라야 한다. 우리는 적셔짐으로 말씀을 마시고 먹으며, 바로 이러한 마시고 먹음으로 우리는 자란다.

몸을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함

계속해서 9 절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라고 말한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지로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그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적셔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고, 분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승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살아있는 몸을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유일한 목적을 위한 것들이다. 또한 그 뿐 아니라 경작지는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건축물이다. 경작지로서 우리는 자라야 하고, 건축물로서 우리는 건축되어야 한다.

16 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라고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따로 분리해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 성전이 오늘날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건축된 성전 대신 단지 흩어진 돌들만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 네 구절들을 따로 분리하는 대신, 이 구절들의 순서를 보고, 그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아야 한다. 2 절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한다. 6 절은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고, 9 절은 경작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결국 16 절에는 성전이 있다. 성전은 경작지와 건축물로부터 나오고, 경작지와 건축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통한 심고 물 주는 것의 결과이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길인 기도로 말씀 읽기

위의 구절들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 교회의 건축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본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함께 건축되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어린 아이들이 영양분을 위해 우유를 마시듯이 말씀을 마셔야 한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우리가 영양을 얻도록 하고,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자라도록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말씀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식을 쌓았을 지도 모르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마시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우리는 말씀을 마시지 않고는 자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성경 안의 말씀을 마셔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이시고, 비밀스럽지만,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하시고, 응축하셨다. 우리는 성경 안의 말씀을 건전지나 성냥에 비유할 수 있다. 건전지가 충전되면, 그것은 마치 성냥이 인의 체현인 것처럼 전기의 체현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성경 안의 말씀은 하나님의 체현이다.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말씀 안에 "충전하고" 체현하신 것이다. 성경은 구체적이고, 견고하다. 성경은 우리 손 안에 쥐어질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성경 말씀 안에 체현된 신성한 본질들은 우리의 영에 의해 만진 바 되고, 받아들여지고, 동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지 가르침이나 지식의 책이 아니며, 바로 신성한 존재의 체현이다. 하나님의 신성한 실질과 본질에 있어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이 성경에 있는 그분의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동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다만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 하나님의 바로 그 체현으로 여기며,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마시고 먹는 것을 더욱 더 관심할 수 있도록, 관념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씀 안의 삼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흡수하고, 동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방식이 아닌 단체적으로 몸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자랄 것이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9 절과 16 절의 '여러분'은 복수형이다. 그러므로, 9 절의 경작지와 건축물, 그리고 16 절의 성전은 단체적인 방식으로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단체적인 몸으로서 하나님의 경작지,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말씀을 마시고 먹음으로 더 자랄 수록, 자연적으로 다른 이들과 더욱 하나가 된다. 이러한 하나는 단지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의 문제이다. 이 경작지에서 자라나는 것이 몸이고, 이 몸이 놀라운 내주하시는 영으로 충만한 건축물,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함께 건축됨으로 그 영으로 채워짐

우리가 더 함께 건축될 수록, 더욱 더 그 영으로 채워진다. 구약에서 성막은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빤지 48 개로 지어졌다(출 26:15-30).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이 땅 위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담기 위한 집으로써 성막이 지어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막을 가득 채웠다(40:34-35). 만약 48 개의 널빤지가 서로 분리되고, 떨어지고, 나눠진 상태로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널빤지를 채우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모든 널빤지들이 하나의 건축물로 지어지고 연결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성막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유일한 집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눠지고, 분리되고, 개인주의적이 된다면, 그 영이 우리를 채우기 어렵지만, 우리가 기꺼이 건축되고자 한다면, 즉각적으로 그 영으로 채워질 것이다. 성령의 채우심은 몸을 위한 것이지, 각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많이 건축될 수록, 더욱 더 그 영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된다.

우리의 하나 안에서의 건축을 위해
영을 훈련함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음

오늘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이것을 성취하시는 실질적인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통해서이다. 이것이 효력이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년간 성경을 공부해왔지만, 아직도 개인주의적이고 나뉘어져 있고, 그들 안에 건축이 없다. 우리가 매일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을 실행한다면, 즉각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건축될 것이고, 모든 다른 의견들과 느낌들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논리를 세우고 다른 이들과 논쟁할수록, 더 다투게 되고, 더욱 분열된다. 이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고, 건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천연적인 논리를 포기하고 매일 함께 모여, 우리의 영을 열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모든 다른 생각과 의견과 관념들은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논쟁하고 논리를 세우기 위해 모인다면, 우리의 논쟁과 논리는 끝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다만 가르침만을 관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이 더 활동적이게 되고, 더 많은 분열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기 위해 함께 모일 때, 모든 천연적인 논리는 끝날 것이다. 우리가 함께 건축되기 위한 최상의 길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인데,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것이 천연적이고 분열적인 생각들을 없애게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우리를 영 안으로 이끌고,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고,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였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분열되었다(5 절, 7 절, 10-11 절).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고린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심었고, 아볼로가 그들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고 물주는 것을 통해 자라게 하셨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자라는 것은 지식이나 은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먹고 마심에 의한 것이었다. 성장은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결과물이 아니고, 적셔짐의 결과물이다. 또한, 성장은 배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이고, 우리로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한다. 바로 이러한 자람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함께 건축되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을 더 소유할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재료들 더미가 아닌 건축된 성전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함께 건축되는 실질적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단체적으로 건축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제사장 체계

비록 고린도전서와 베드로전서는 다른 사도들에 의하여 쓰여졌지만, 두 책의 사상은 동일하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젖을 먹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고전 3:1-2)이라고 말했으며, 베드로는 그를 따라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젖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벧전 2:2)라고 하였다. 베드로전서 2 장은 건축과 제사장 체계를 다룬다(5 절, 9 절). 구약의 규례들에 따르면 제사장 견습생들은 스물 다섯살이어야 하고, 제사장들은 서른살이어야만 한다(민 8:24, 4:3).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랄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방식으로 자신들이 약하고, 어리며, 아이같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어리고 약한 사람은 제사장 직분으로부터 제외된다. 우리는 갓난 아기로써, 자라기 위해 말씀의 젖을 마셔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입맛과 갈망,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시기를 기대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 장 2 절에 따르면, 말씀의 젖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3 절은 계속하여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좋으시다는"의 헬라어는 "기쁘게 하시는"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말씀의 젖을 마시는 것은 주님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2 절과 3 절은 말씀이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명한다. 맛보는 것은 아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전혀 먹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아야 한다. 주님을 맛보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연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젖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균형잡힐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행 2:42, 딤후 3:16),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기 위해 말씀을 맛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년동안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을지 모르나, 우리가 주님께서 좋으시고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맛보았는가?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맛봄에 의해서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말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마시고 흡수함으로 누리는 기쁜 맛봄을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하고, 누림으로 흘러넘치게 한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마시고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 장 5 절은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라고 말한다. 성장과 건축을 위한 먹음에 관한 베드로의 사상은 고린도전서 3 장에서의 바울의 사상과 같다. 그러나, 베드로는 덧붙여 이러한 건축, 영적인 집이 제사장 체계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신약에는 세 개의 헬라어 단어가 제사장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히브리서 7 장 12 절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는 '히에로수네(hierosune)', 제사장의 봉사를 가리키는 '히에라테이아(hierateia)'(5 절), 제사장들의 모임, 제사장 무리, 제사장 체계를 가리키는 '히에라튜마(hierateuma)'(벧전 2:5, 9)이다. 동역하는 제사장 무리는 건축된 영적인 집이다.

건축된 제사장 체계, 제사장 무리를 실제화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욱 기도로 말씀을 읽을 수록, 저절로 우리는 더욱 더 건축되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다. 우리가 다만 각자 주님을 누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한 그룹의 형제나 자매들과 함께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 더 충만한 만족을 누린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저절로 다른 지체들과 동역하게 되며, 우리의 다른 생각과 의견들은 내려놓게 된다. 우리는 서로와 하나라고 선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지 선포만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기도로 말씀을 읽기 위해 모인다면, 우리는 선포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제사장 체계, 한 제사장 무리가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서 5 장 25 절(하)-26 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라고 말한다. 주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 거룩하게 하심을 성취하신다. 26 절에 "씻는" 으로 해석된 단어는 헬라어로 물두멍이다.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는 것은 성막 입구의 밖에 위치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는 것으로 비유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씻는 물이 있다.

계속해서 27 절은,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한다. 교회는 오염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점이나 주름도 없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의 얼굴에 흙은 묻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점과 주름이 있을 수 있다. 점은 천연적인 생명의 어떠함을 상징하고, 주름은 낡은 것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수십 세기 동안의 역사로 인한 점과 주름을 가지고 있다.

물 속에서 목욕함으로 우리의 신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몸의 점과 주름은 목욕으로는 씻어낼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 천연적인 존재의 점과 주름은 외적인 물로 씻어낼 수 없다. 그것들은 다만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물, 내적인 생명의 물에 의한 신진대사적 씻음을 통하여 씻겨진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낡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신성한 생명의 새로운 요소들로 교체한다.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흐를 때, 우리의 모든 점과 주름은 씻겨져 나갈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의 신진대사적인 씻음과 새롭게 함을 위해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물을 마실 필요가 있으며, 신진대사적 변화를 위해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고, 우리의 속 존재 안으로 흡수시켜야 한다. 말씀 안에 있는 영양분은 우리를 씻고, 우리의 낡음을 제거하고, 신성한 생명의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옴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점과 주름은 씻겨 내어지며, 교회는 단지 깨끗하고, 합당하며, 온전할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말씀 안에 있는 물에 의해 기꺼이 씻겨 져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은 만유를 포함하고, 교회에 영광을 줄 수 있다. 말씀은 주님 자신의 체현이며, 그분은 우리를 만족케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실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흠과 낡음을 씻어내는 물이시다. 말씀의 물 안에서 씻어짐으로, 교회는 신선하고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건축되기 위하여, 단체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무리가 되기 위하여, 또한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되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을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는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필요임에 관해 내게 인상을 주셨고, 그분의 백성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라고 분부하셨다.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함께 건축되고, 하나의 제사장 무리로 협력하며, 우리의 모든 점과 주름이 정화되어 주님을 만족시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1 권, "말씀을 기도로 읽음" 3 장)

추가로 읽을 말씀

1.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1 권, "말씀을 기도로 읽음" 1, 2, 3, 4, 5 장
2. 말씀을 기도로 읽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

2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음

성경: 마 4:4, 요 1:1, 5:39, 고후 3:18, 시 119:147-148, 레 11:26,
롬 8:4-6, 갈 5:16-25, 엡 5:18, 골 3:16

I. 기도로 말씀 읽기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이다-마 4:4, 요 6:57, 63

II. 마치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먹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잔치로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비교 시 55:17, 단 6:10

A. 기도로 말씀 읽기는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대신에 먹을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말씀 읽기해야 한다.

B. 삼일 동안 우리 배를 음식으로 채우고나서 다음 삼일 동안은 음식없이 지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양의 음식을 먹는다.

C.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 부흥 시간이다. 매일 이 삼십 분 동안 세 네 구절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로 말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다-시 119:147-148, 143:8, 애 3:22-26.

D. 이에 더하여 오전 휴식 때, 점심 때, 오후 휴식 때, 저녁에 귀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말씀을 꺼내어 이런 식으로 누릴 수 있다.

E.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누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확실히 건강하고 살아있을 것이다.

III. 참된 아침부흥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 자신으로 취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교통하는 것이다-요 1:1, 5:39, 고후 3:18, 영한동번 #812, #813

A. 주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나올 때 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단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 곧 주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나아오는 것은 주님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이다 -요 1:1, 5:39.

B.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과의 의사소통이다.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에게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합당한 길이다-시 27:8.

C. 아침부흥을 할 때 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에게 말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출 33:11a.

D.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하심이라는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온 존재는 그분의 얼굴의 빛남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 안에서 목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비교 찬송(영한) #784, 6절

IV.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도로 말씀 읽기보다 더 풍성하고 더 넓고 더 포괄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시 119:15, 23, 48, 78, 99, 148

A. '음미하다 혹은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허리를 굽히다, 누구와 대화하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리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대화를 나눔으로써 말씀을 묵상한다—시 1:1-3, 19:14, 104:34.

B.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기도와 경배와 누림과 대화와 허리를 굽힘과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과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외치고 심지어 우는 것도 포함된다.

C. 보통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 보다 느리고 섬세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다 우리는 자연스러워야 하고 누림이 가득해야 한다.

D.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호흡으로 누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 주입받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들이마시고 영적인 영양공급을 받을 것이다-딤후 3:16.

V. 어느 때든지,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는 성경을 펴서 몇 구절을 기도로 읽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영을 받는다—골 3:16, 시 119:97, 비교 1:1-3, 신 6:6-9

A.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씹어먹음으로써 되새김질 해야 한다-레 11:26

1. 되새김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숙고하고 또 숙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한다-시 119:95, 97, 비교 딤후 2:7.

2. 되새김질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씹어먹는 것이다.

a. 하루종일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같은 한 구절을 반복해도 좋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유죄판결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유죄판결할 수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결코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다."

b. 이 구절은 하루 온종일 우리를 공급하고 영영분을 주고 적셔줄 수 있다.

B.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머니나 손가방에 작은 성경을 갖고 다니든지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든지 해야 한다. 아침에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때만 되면 한 구절을 기도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다.

VI. 기도로 말씀 읽기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롬 8:4-6, 갈 5:16-25, 엡 5:18, 골 3:16

A.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모든 뛰어난 미덕들로 그분을 표현함으로써 그분을 살기 위해 그 영으로 행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빌 1:21a, 갈 5:22-23

B. 영을 따라 행하고 무엇을 행하기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1. 남편이 아내와 함께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한다면 그 부부는 쉽게 성질을 이기고 배우자에게 인내할 것이다. 남편과 문제가 있을 때 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말다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말씀 읽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접촉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2. 우리가 불행하거나 슬프다면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기도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한동안 한 뒤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렘 15:16.

3. 우리는 밧데리와 같고 주님은 전기 발전소와 같으시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말씀 읽으면 즉 주님을 더 접촉한다면 우리는 더 충전된다. 충분히 충전된 뒤에는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전기'와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역의 말씀 발췌

믿는이들에게 매일의 음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람을 위한 모든 요소이시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모든 항목들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니다. 의심할 바 없이 성경은 가르침의 책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우리의 정신적인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음식으로 공급하는 책이다. 성경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며, 비밀한 책이다. 성경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룩없는 떡(고전 5:8)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시며, 생명수(요 4:10, 7:38-39)이시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영적 실재에 관해 말하는 상징들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음식이신 그분의 말씀을 취할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읽은 말씀을 기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기도로 말씀 읽기를 통해, 우리는 읽은 말씀을 성령 안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 말씀은 영이 될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은 영이 된다. 말씀과 영은 하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영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것은 다시 말씀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다시 그들 안에서 영이 된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 장 63 절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라고 말씀 하신 이유이다. 이것은 생명의 공급이고 또한 생명의 분배이다.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영과 생명이신 말씀이심(요 6:63)에 근거하여 생명의 떡이시다. 우리 믿는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누린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주님의 영을 접촉함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린다(엡 6:17-18 상).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나아와(비교 시 55:17),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잔치로 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삼일 동안은 배부르게 먹고 다음 삼일 간은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건강한 사람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는다. 즉, 자주 먹지만 절제하며 먹는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일의 만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음식이시다(요 6:31-35, 48-51).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부흥 시간이다(시 119:147-148, 143:8, 애 3:22-26). 우리는 매일 이십 분 내지 삼십 분을 들여 세 구절에서 다섯 구절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린다. 말씀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흡수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한 공급과 그분의 풍성한 분배하심을 받아들인다.

위와 같은 것에 더하여 우리는 아침 휴식 시간, 점심 시간, 오후 휴식 시간,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꺼내어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누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참으로 건강하고 살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달콤한 공급을 받아들이고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빛 비춤과 책망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의 죽이는 기능도 받아들여야 한다(엡 5:13-14, 롬 8:13). 주님의 말씀은 항상 빛 비추신다. 이 빛 비춤에는 책망이 있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자주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세상의 오물로 더렵혀진다.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살 때가 많으며 실수한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빛 비추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신다. 우리는 개선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 넘기며,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효능이 죽이는 역사를 하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신 공급과 분배하심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물을 통해 씻겨지고 구출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하심, 3 장)

아침 부흥은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임

나는 아침 부흥에 관한 글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를 결코 잊을수가 없다. 그 제목은 "그 해의 계획은 이른 봄에 세우며, 그 날의 계획은 이른 아침에 세우라"이다. 저자는 아침은 가장 귀한 시간이며, 아침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아침 부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형식적인 아침 부흥은 그다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진정한 아침 부흥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 자신으로 취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교통하는 것이다.

가끔은 여러분이 아침 부흥을 할 때, 직장에 시간 맞춰 가기 위해 좀 서두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읽기와 기도에 충분한 집중을 할 수 없다. 다른 때는 당신이 서두르지는 않지만, 가벼운 방식으로 읽으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위의 실행들 중 어느 것도 좋지 않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영을 훈련하지 않고, 말씀을 주님 자신으로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침 부흥은 바르지 않다. 아침 부흥을 혼자서 하건, 몇 사람과 함께 하건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성경 말씀을 읽으러 나아올 때 마다, 반드시 그것을 그분 자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다(요 1:1). 만약 여러분이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내가 여러분의 편지를 받는 것과 그 편지를 손에 들고 당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별개이다. 우리는 성경 앞에 올 때, 그분의 말씀을 손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그분 자신으로 취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께 얘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성경은 세속적인 책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우상으로 숭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그저 눈으로만 성경을 읽어서는 안되며, 단순히 머리로 외우거나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반드시 기도로 말씀을 먹어야 한다(엡 6:17-18 상). 다시 말해, 당신의 읽기와 기도를 연합시켜야 하는 것이다. 기도는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의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로 말씀을 먹는 동안, 성경의 말씀들을 당신의 기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결국, 여러분은 그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합당한 방식이다. 이런 종류의 기도로 말씀 먹기는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 부흥을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기 위해 그 곳에 있다는 깊은 느낌을 가져야만 한다. (소그룹 집회를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7 장)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기도로 읽기

영을 따라서 행하고 어떤 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이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해 인내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만약 남편들이 아내들과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질을 쉽게 이길 것이고, 아내들에 대해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려고 하거나, 논쟁하거나, 참거나, 겸손하려 하거나, 다른 이들을 설득하려 어떤 것을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 이런 모든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내들에 대해 더 인내하려고 시도할 수록 우리의 아내들은 우리에게 더 문제거리가 되는 것 같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인내와 겸손을 소진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달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우리가 가지치기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지만(요 15:2), 그분은 아내를 가지치는 가위로 사용하실 것이다. 같은 원리가 아내들에게도 적용된다. 여러분의 남편과 문제가 있을때 가장 좋은 것은 남편과 논쟁하지 않고,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다. 이것이 영을 훈련하고 접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문제에 관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지 않을 때, 더 분석하고 고려할 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거나 고려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잊어야 하고, 단순히 기도로 읽기 위해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 어떤 구절을 고를지 너무 많이 고려하지 말고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얼마 후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실해질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만약 우리가 기쁘지 않거나 슬플 때,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노력해서는 안된다. 그대신, 어떤 구절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그것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어느 정도 후에 우리는 위로받을 것이고, 주님의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다(렘 15:16). 기도로 읽는 것은 단순하게 "스위치를 켜는 것", "전원에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위치를 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말씀 안에 있다.

우리가 아내와 문제가 있을 때, 효력이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왜 효력이 있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안다. 우리는 전기를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을 전원에 연결하거나 스위치를 켤 때, 전기가 그것을 작동하게 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을 접촉한다. 우리는 전지와 같고, 주님은 전기 발전소와 같다. 우리가 기도로 읽으면 읽을 수록, 즉,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접촉할 수록, 우리는 더욱 더 충전되게 된다. 얼마 후에 우리는 신성한 전기이신 주님으로 완전히 충전될 것이다. 더 많이 기도로 읽고, 더 주님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더 충전될 것이다. 완전히 충전된 후에,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전기"와 동역해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전기"는 우리의 협력을 요구한다.

우리가 아내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겸손하거나, 인내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로 말씀 읽는 것인데, 우리가 영을 접촉할 때에 우리는 하늘의 전기로 충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전이 되고난 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 전기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기도로 읽고, 주님을 접촉한 후에는,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치기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아내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틀리며, 조정되고, 가지치기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전기와 동역하기를 자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내적으로 충전되고 나서, 우리 안에 인간적이거나 천연적이 아닌, 영적이고 신성하며, 하늘에 속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적인 전기에 의해 가지치기 되어지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랑'이나 '인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어떤 구절들을 기도로 읽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기도로 읽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충전된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조정받고, 가지쳐지기 위해, 그 영의 일하심에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신성한 숨, 놀라운 생명주시는 영이시다(고전 15:45). 그분의 승휼에 의해 우리 영은 거듭났고, 이제 이 놀라우신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과 편의를 위하여, 이 영은 말씀 안에 체현되었고, 말씀은 인쇄되어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마다,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으로 충전된다.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기도로 읽을수록, 우리는 하늘의 전기이신 그 영으로 더 충전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의 살아있고 유력한 말씀은 우리를 가지칠 것이다. 우리가 해야할 모든 것은 단순히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에 결코 거역해서는 안된다. 대신, 우리는 그 영과 하나되고, 그분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영을 따라 행하게 되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우리와 한 영 되시려고 들어오셨고,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체현되신 놀라우신 영이신 주님으로 인해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을 열고, 읽고, 말씀을 기도로 읽기 위해 우리 영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욱 더 충전되고 그 영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읽는 데에 시간을 들이는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얼마나 바쁜지와 관계없이, 매일 먹기 위해 시간을 낸다. 때로 우리는 너무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데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의 표시이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말씀을 기도로 읽기에 어느 정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단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만 여기지 말고 살아있는 영께서 체현되신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이해나, 지식이나,

가르침을 위해 말씀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우리는 기도로 읽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신성한 말씀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부딪히게 할 것이며, 말씀이 그 영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기도로 읽는다면, 마치 전지가 전기로 충전되듯이, 우리는 그 영으로 더 충전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과 협력해야 한다. 그 영은 주님을 위해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 영은 우리를 조절하고, 교정하며, 가지치고, 변화시키고, 굴복시키고, 심지어 파쇄하기까지 하신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고, 힘이 있고, 적극적이 될 것 이다.

이것은 주로 일련의 가르침들과 형식들을 가진 종교로서의 기독교와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이것은 영 안에서 사는 문제이다. 게다가, 성경은 단순한 가르침의 책이 아니라, 그 영의 책이다. 그것은 살아있는 그 영의 체현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으로 성경의 말씀에 부딪히게 하기 위해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말씀을 기도로 읽는데 보낸다면, 우리는 그 영으로 더욱 더 채워질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2 권, “새크라멘토 특별집회”, 5 장)

추가로 읽을 말씀

1. 하나님의 경륜과 분배하심, 3 장
2. 소그룹 집회를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7 장
3.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57 장
4. 레위기 라이프 스타디, 36 장
5.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2 권, “새크라멘토 특별집회”, 5 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

3과

단체적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음

성경: 엡 5:29-30, 3:18, 골 2:19, 3:16

I. 우리의 신성한 음식이신 주님은 몸을 위한 것이지 다지 개인적인 지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몸의 몇 지체들과 함께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몸의 원칙을 지킨다 —비교 골2:19:[1]

A. 먹는 것은 몸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지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엡 5:29-30, 고전 10:17, 12:13.

B. 우리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더 큰 그룹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말씀의 풍성을 깨닫는다.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려면 몸이 필요하다—골3:16, 비교 엡 3:18.[2]

C. "합당하게 말씀을 기도로 읽으려면 몸이 필요하다. 내 체험으로 이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혼자서 말씀을 기도로 읽음을 누리지만 한 무리의 믿는이들과 기도로 말씀 읽기를 실행할 때마다 삼층천으로 옮겨진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 Vol. 1, p. 415.

II. 우리가 단체적으로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A. 마치 농구팀의 각 선수가 분발하여 경기할 준비를 하듯이 우리의 영도 분발되어야 한다. 우리가 집회하러 모일 때 반드시 우리의 영이 분발되고 준비되어야 한다—학 1:14

1.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2. 우리는 자신의 불안함과 소심함과 지나치게 조심함과 자기를 의식함을 떨쳐버리고 영 안에서 담대해야 한다—딤후 1:6-7, 비교 잠 29:25.

B. 단체적으로 기도로 말씀 읽기 할 때 네 단어 즉 "빠르게, 짧게, 참되게, 신선하게"를 기억해야 한다.

1. '빠르게'는 우리의 생각을 잊는 것이다. 우리가 빠를 때 생각할 시간이 없다.
2. 그런다음 우리의 기도는 짧아야 한다. 왜냐하면 긴 기도는 작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또 우리는 참되어야 한다.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4. 끝으로 신선하기를 배워야 한다.

C. 우리는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함은 낡지 않고 살아있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영감이 있는 새로운 언변이 필요하다.

D. 우리는 서로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은 서로 협력하는 기술이다. 집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다해도 우리는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협력의 영과 협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 기도로 말씀 읽을 때 우리는 너무 크게 소리내지 말아야 한다. 기도로 말씀 읽기는 맛과 분위기와 기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로 말씀 읽기라고 부를 수 없다.

F.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반드시 자신의 습관에서 나와야 한다.

1. 우리는 필요와 분위기에 따라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해야 한다.
2. 우리는 습관에 따라 소리치지 말고 상황과 상태와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외쳐야 한다. 우리의 해방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해방될 필요가 있다.
3. 적은 인원으로 할 때는 낮은 음성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 영을 체험해야 하고, 많은 인원의 성도들과 할 때는 그 영 안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G. 단체적으로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읽는 구절 안의 요점의 순서대로

기도할 필요는 없다.

1. 우리는 다른 이들이 구절의 순서나 중점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다.
2.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율법적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마치 원하는 대로 부는 바람같아서 어떤 때는 여기로 다른 때는 저기로 불기 때문이다—요 3:8

H. 영감을 갖게 되는 순간 우리는 뒤로 물러나거나 너무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1. 기도로 말씀 읽기를 할 때 우리는 관례를 고집하거나 주저하거나 너무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기도를 잘 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2. 단순히 우리 앞에서 기도한 사람의 느낌을 계속하고 좀 더 추가하면 된다.

I. 우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구절들을 기도로 읽지 말아야 한다.

1. 너무 많은 구절들을 사용하면 중점에 대해 혼돈되거나 빗나가게 되고 받은 영감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2. 어느 것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어느 구절에서 깨닫는 것이 없다면 억지로 소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된다.

J.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대변인이 되어야지 분산된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1. 그 영께서 움직이실 때 마다 다른 이들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항상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2. 우리가 합당치 못한 생각을 하거나 그 영께 닫혀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흐를 수 없을 것이다.

K. 우리가 성도들을 이끌어 말씀을 기도로 읽게 할 때 그들을 손상주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1. 성도들을 인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잘 하지 못한다고 퉁명스럽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의 영에 상처를 준다. 성도들의 영에 손상을 주어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면 그들의 영은 다시 일어서지 않을지도 모른다.
2.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로 말씀하도록 인도할 때 천천히 해야 한다. 이것은 인내가 요구된다.

III. 우리는 단체적인 기도로 말씀 읽기의 유익을 보아야 한다.

A. 형제 자매들이 기도로 말씀 읽기를 위해 함께 모일 때에 그것은 우리를 서로 협력하게 만든다. 우리 몇 명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함께 섞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관심이 증가한다.

B. 단체적인 기도로 말씀 읽기는 우리가 집회 가운데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증거하고 주님이—은혜를 말하도록 도울 수 있다—골3:16, 비교 벧전 4:10-11.

C. 단체적인 기도로 말씀 읽기는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게 한다—딤후 1:6-7, 롬 12:11:

1. 큰 목재 하나로는 타오르는 불을 갖기 어렵다. 작지만 많은 나무들을 함께 쌓아놓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나무 하나에 불을 켜면 즉시 불이 타기 시작한다.
2. 집회에서 가장 귀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영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다. 소그룹에서 기도로 말씀 읽는 것이 이것을 격려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다.

D. 또한 교회도 성령께서 집회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시는 것을 허락해 드림으로써 유익을 얻는다. 이것은 집회가 살아있게 만든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될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이들도 도움을 얻고 교회가 살아있게 된다는 것을 볼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기도로 말씀읽기 집회에 관한 몇가지 원칙

이 교통의 시간 동안, 우리의 집회는 명백히 변화되어왔다. 우리는 대부분의 기독교 예배 방식과 방법들을 내려놓았다.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혁신적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길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집회에서, 우리는 몇 가지 원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함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그 영의 이끄심에 의해 우리들 가운데 모든 성도가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기를 소망한다. 성도는 대단해 보이건 작아 보이건 간에, 연로하거나 젊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경험이 많거나 적거나, 그는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어깨와 손가락처럼, 우리 몸의 지체들은 크기가 매우 다르며, 큰 지체들은 그들의 기능이 있고, 작은 지체 또한 그들의 기능이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은 내 입과 함께 움직이며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단지 내 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전체가 나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 몸의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기를 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 원칙을 수 년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고, 기독교에는 이러한 실행이 없었다. 게다가,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의 틀에 박힌 방식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특정한 지역에서 자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지방의 사투리로 말하는 것을 배우며, 나이가 들어 사투리를 바꾸려고 하면 어렵다. 우리의 기독교 배경의 잠재 의식적인 영향과 통제를 피하는 것은 어렵다. 비록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더라도, 다만 반 정도의 성도들이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했으며, 나머지 반은 마치 전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순하고, 실제적이며, 새롭고 살아있는 방식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우리는 기도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서로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에게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읽어주며, 누림을 나누고 간증함으로, 형제 자매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입을 여는 것이 모두에게 쉬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기도로 말씀읽기와 기도로 찬송하기의 실행 안에서는 우리가 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으며, 기도를 가다듬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단지 성경의 말씀들을 사용하거나, 찬송의 구절들을 사용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기가 쉽다. 이 변화로 인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입을 열어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영을 훈련하기

두번째 원칙은 형제, 자매들이 집회에서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조용히 있다가 돌아갈 때 기운이 빠졌던 체험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을 몇 번 열면, 우리는 내적으로 신선하게 되고 진실로 주님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집회에 관한 첫번째 원칙이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었다면, 두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농구를 할 때, 그들의 몸을 훈련한다.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을 훈련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가 집회에서 자신의 영을 훈련할 기회가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주님의 영을 접촉함

세 번째 원칙은 우리가 주님의 영을 접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 영이시다 (고후 3:17); 그분은 공기만큼이나 실재적이시고, 살아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열고 “오 주님” 이라고 부르는 순간, 주님을 만질 수 있다. 체험이 없는 이들은 우리가 부르는 것을 들을 때 이것은 메시지들을 듣는 것보다 한참 낮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체험이 있는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누림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집회에 오는 대부분의 이러한 성도들은 누군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보다 차라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만약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리 형제님은 다른 이들이 메시지 전하는 것을 질투한다. 형제님이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할 지 모른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능을 주셨고, 매우 많은 메시지들을 전함으로써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기초를 갖게 되었다.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목사였었고, 또 어떤 이들은 전도사였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기도로 말씀 먹기를 포기하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거나 좋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로 말씀 먹기와 기도로 찬송하기의 맛을 맛 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들을 견고하게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

네 번째 원칙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서너 구절 기도로 말씀 먹는다면, 우리에게 매주 세 네 번의 집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열 두 구절들은 기도를 통해 받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메시지를 듣거나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다. 기도를 통해 한 주에 열 두 개 이상의 구절들을 축적할 때, 한 달 뒤에는 육십 개의 구절들, 한 해에 대략 칠백여 개의 구절들이 우리 안에 쌓일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것 없이 단지 기도로 말씀 먹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부정확한 것이며, 반대로, 기도로 말씀 먹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실질적이고 깊은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방식의 집회는 네 가지 원칙-모든 사람이 기능을 발휘함, 영을 훈련함, 주님의 영을 접촉함,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이 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열리고,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고, 영을 훈련하고, 주님의 영을 접촉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한다면, 교회는 더욱 더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 질 것이다.

실행에 관한 말씀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을 실행했던 과거에는,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화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일부는 아멘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은 부족한 점이었다. 모두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합당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영감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경배는 어떤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혼돈이 있는데, 이것은 특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을 때 두드러진다. 이러한 종류의 혼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팀에 있는 다섯 명이 농구 경기를 하는 것을 훈련해 본 적이 없다면, 함께 모여 경기할 때 당연히 혼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훈련이 있다면 혼돈이 없을 것이다.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은 유익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훈련이 없었고, 그 결과로 어떤 때에는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는 반면, 다른 때에는 모두가 동시에 기도하려고 한다. 이 결과 혼돈이 생기게 된다. 외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때로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외칠 수도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합당한 속도,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와 강조함으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항목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혼돈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나, 기도로 찬송하는 것이나, 우리는 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눈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입을 여는 것을 감지하면 내 입을 닫아야하고,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듣는 것과 보는 것을 훈련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지만, 성실히 실행하면 할수록 더욱 더 능숙해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집회에서 말하는 것의 내용면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다른 이들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때로는 어떤 형제가 해방된다 하더라도, 그는 마치 우주 가운데 자신이 유일한

사람인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그보다 이전 사람이 기도한 것이나 다음 사람이 어떻게 이어서 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가 없다. 그는 다만 자신의 외치는 것만을 관심한다. 만일 모든 성도들이 이같이 행동한다면, 집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들을 외쳐 말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역해야 한다. 당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외친다고 하고, 그 후에 내가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라고 외친다고 하자. 이 두 기도에는 어떤 연결이나 이어짐이나 동역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라고하고, 또 다른 형제가 계속하여 "그침없는 찬양을 받기에 [그러하십니다]"라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두 기도는 그 의미에 있어 연결된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로 찬송하는 것은 음성과 의미 둘 다에 있어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든지, 기도로 찬송을 하든지, 우리의 말들은 주님을 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호를 외치는 것과 같이 외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에 있어 적절한 음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단지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더욱 정제될 때까지 훈련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정제된 것이며, 시장에서 말다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해방하기 위하여 외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해방하는 것을 막는 많은 것들로 억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우리는 또한 정제되어질 필요가 있다.

어떤 형제들은 외치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반대한다. 외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 외치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현 시대는 그 영의 시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외치는 것이 어떤 성도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어야 하며, 여전히 우리의 영은 해방될 수 있다. 우리는 외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하고, 외치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열려져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로 찬송할 때와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진정으로 훈련해야 하는데, 영감을 받고 우리가 받은 영감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능숙해질 때까지 실행한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역시 논리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감을 받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어떠한 영감도 받지 못할 지 모르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해낸 영감으로부터 영감을 받게 된다. 그들의 말함으로 인해 내가 영감을 받고, 내가 나의 영감을 말해낼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영감을 얻는다. 한 성도, 한 성도가 자신의 영감을 말해낼 때 집회가 풍성해진다. 이러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로 찬양을 하든지 기도로 말씀을 읽든지 그 초점은 우리의 영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감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또한 적절한 때에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것이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읽는 중간에 찬송가를 한 곡 부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찬송가 몇 장을 부를지를 말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만 친숙한 찬송가를 부르도록 이끌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살아있기 위한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로 읽은 주요한 말씀들을 취하여 친숙한 곡조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풍미로 가득하게 된다.

나는 어떤 성도들은 아멘을, 다른 성도들은 할렐루야를 너무 많이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로 찬양을 할 때, 모든 구와 절과 문장 후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고 의미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아멘이라고 말함으로 반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문장에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엄격하여 전혀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아서도 안된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에게 와 닿는 데에 달려있다.

나는 또한 어떤 성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거나 말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받은 유익을 전람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요리를 내어 놓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기도로 읽은 후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내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편 23 편을 기도로 읽은 후 한 형제가 일어서서 "과거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것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형제가 "여기에 쓰여진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충만하게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소생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형제는 "소생된 후 우리는 걷기 시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우리가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주님께서는 기독교의 낡은 방식이 아닌 전적으로 영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방식인 새로운 길을 취하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길을 취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8, 2 권, "기도로 말씀을 읽는 집회의 실행")

추가로 읽을 말씀

1. 위트니스 리 전집, 1966, 2 권, "영을 훈련함으로써 종교적인 실행으로부터 구원됨, 9 장
2. 위트니스 리 전집, 1966, 3 권,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회의 실재", 10 장
3.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1 권, "말씀을 기도로 읽기", 2 장
4. 위트니스 리 전집, 1967, 2 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살아있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열매 맺음", 14 장
5. 위트니스 리 전집, 1968, 2 권, "그영의 시대로의 전환", 6 장
6. 위트니스 리 전집, 1968, 2 권, "기도로 말씀을 읽는 집회의 실행"
7. 종교적 의식에서 벗어나 그 영에 따라 걷기, 16 장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

4과

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말씀을 노래하고 시로 읊음으로써 말씀으로 적셔짐

성경: 빌1:19-21a,2:16,엡 5:18-20,골 3:16-17, 시119:54,고전14:15, 26

I.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하루종일 우리 자신을 말씀 안으로 끼워넣는 것이다. 이러한 끼워넣음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빌1:21a,엡 5:19,골 3:16-17:[1]

A.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과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다—빌4:1-3, 12, 16,골 1:24,2:19

1.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갖고, 그리스도를 교회생활의 실재 곧 실지 내용으로 가짐으로 각 지방 교회를 금등잔대로 만드는 것이다. 몸의 생활은 로마서 12장의 실재에 도달할 것이고 이것은 그분의 다시오심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것이다.
2. 맨 처음부터, 심지어 영원부터 이것은 주님이 갈망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다.

B.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충만되는 것이다—빌 2:16

1. 우리가 온 존재를 사용하여 말씀을 취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만되고 점유되고 적셔질 것이다.
2. 말씀은 그 영의 체현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될 것이고,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마다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고전15:45b, 요 6:63, 골 3:16-17.

II. 우리는 기도로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음을 체험으로 알지만, 이제 우리는 반드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노래함으로써 말씀을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더 나은 길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시로 읊을수록 더욱더 말씀이 우리 존재의 깊은 속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적실 것이다—골 3:16

A. 우리의 영은 휘발유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로, 말씀 곧 성경은 주유소로 비유할 수 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휘발유를 무한정으로 공급받는다. 이 '휘발유'를 우리 안으로 펌프질해서 넣는 길은 말씀을 노래하고 시로 읊는 것이다—엡 5:18-19, 골 3:16

1. 골로새서 3:16과 에베소서 5:18-19는 우리의 성경 읽기가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음의 회복에 감사드린다. 이제 반드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함으로 읽어야 한다. 우리는 온갖 지혜로 노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골로새서 3:16에서 바울이 분부한 것이다.
3. 성경 읽기를 누리는 가장 높은 길은 말씀을 자연스러운 멜로디로 노래하는 것이다.
   a.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하시는 말씀이 되기 위한 것이다— 요 6:63, 엡 6:17-18
   b.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영을 훈련하기 위한 탁월한 길이고, 기도하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하는 것은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특히 좋은 길이다

—고전 14:15

4. 만일 특정한 구절을 노해하려고 사용할 멜로디를 모른다면 우리의 것을 만들 수도 있다.
5.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든 못 부르든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신다.
6. 말씀을 노래하는 동안 우리는 눈을 사용해서 읽고, 생각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감정을 사용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를 사용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눅 24:45, 시119:140, 173, 엡 6:17-18
7. 우리는 집회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노래해야 한다. 특히 집에서 말씀을 노래로 불러야 한다. 방에 혼자 있을 때나 식탁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야 한다.
8.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노래하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집회에서 노래할 때 우리의 집회는 형식적이지 않을 것이고 일상생활의 전람으로 가득할 것이다.

B. 우리는 시를 읊음으로써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엡 5:19, 골 3:16:
1. 시를 읊는 것은 노래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심오하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 더 낫고, 말씀을 시를 읊는 것이 말씀을 노래하는 것보다 더 낫다.
2. 시를 읊는 것은 일종의 노래부름인데 묵상을 포함한다.
   a. 노래하는 것 자체는 많은 묵상이 포함되지 않으나 시를 읊는 동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심지어 주님이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과 대화한다—시 1:1-3.
   b. 말씀을 시를 읊을 때 우리는 말씀 위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누리고, 그럼으로써 말씀이 우리를 적셔줄 기회를 더 많이 준다.
3. 시를 읊는 것은 노래로 부르는 멜로디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a. 우리 자신의 곡조로 혹은 각종 불규칙적인 곡조로 시를 읊을 수 있다.
   b. 그러 때 무슨 결과가 나올지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달콤함이 있을 것이고 강건하게 되어서 신성한 신성한 성분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C. 골로새서 3:16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사실상 신약 전체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존중해야 한다.
1.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구절들을 노래로 부르긴 하지만 대부분 구약의 구절들만 노래한다. 이것이 좋긴 하지만 신약의 구절들을 노래하는 것 만큼 풍성하지 않다.
2. 특히 우리는 신성한 계시의 심장부를 이루는 네 책—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을 노래함으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려야 한다.
3.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달해주는 이 구절들을 노래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신성한 풍성으로 충만한 책들이다.
4.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의 도우미로 신약 전체를 음악화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약의 모든 구절을 위한 곡조를 갖게 될 것이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영문판 366쪽

III.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시로 읊고,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을 실행한다면 교회 생활이 높이 올려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제시된 것을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깊은 인상을 받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되고 주님을 살게 될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말씀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누림

나는 우리가 신성한 요소의 견고하고도 구체적인 실체를 깨닫고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곧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말씀은 신성하며 말씀은 아주 특별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의 응축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성을 그리 많이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이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성경은 일종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호흡의 응축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지식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추구하고 살아 있는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

다음의 세 가지 요점들을 기억하라.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여 그분을 사는 것이다. 둘째 그분은 지금 그 영이시며, 세째로는 그분이 또한 바로 말씀이시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들을 여러분의 경험에 적용할때, 그것 들이 하나임을 발견한 것이다. 말씀과 그 영은 하나다 (요 6:63). 이 놀라운 분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그 영이다. 이 놀라운 분이 여러분 밖에 남아 계실 때 그것은 말씀이다. 그렇지만 이 둘이 하나다. 성경이 그 영과 분리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둘은 바로 하나다. 그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과 같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과 여러분의 몸은 바로 하나다. 여러분은 그 둘을 분리할 수 없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분리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시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과 그 영을 분리한다면 성경은 바로 죽은 몸과 같다. 이것이 성경에서 문자(letter)라고 부르는 것이다(고후 3:6). 문자는 죽은 기록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둘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누림에 있어서 하나로 두어야 한다.

성경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편 119 편, 에베소서 5 장과 6 장, 골로새서 3 장으로부터 내가 깊고도 현저하게 인상 받았던 것은 읽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시작 단계에 들어선 것 만으로는 결코 아무 것도 끝마칠 수 없다. 시작 단계는 다만 시작일 뿐 여러분은 전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들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노래하며 기도하며 시를 읊으며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읽는 것 외에도 여러분은 기도와 찬송과 시를 읊음과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 읽는 것은 이 다섯 가지의 의무일 뿐이다. 과거에 우리는 균형잡히지 않았었는 데, 이는 우리가 읽는 것을 너무 중시했기 때문이다. 읽는 것은 시작 단계이며 다음에는 기도가 뒤 따라야 한다. 그리고 찬송과 시와 감사가 뒤 따라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 이 세 부분들 모두에서 “읽는다”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 안에서와 우리의 입술에는 읽는 것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 몇개의 장들 속에 살아 있는 말씀을 접하기 위해 많은 다른 술어들이 사용된다. 시편 119 편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술어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심지어 무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실행의 필요

이 말을 하나의 메시지로만 취하지 말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교리로 취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온전케하는 훈련에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기도하라.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네 권의 책들 –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을 통해 기도할 수 있기를 매우 소망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찬송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를 읊을 수 있다. 시를 읊는 것은 찬송하는 것에 비해 많은 가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곡조로 또는 모든 종류의 불규칙적인 곡조를 이용해서 부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보게 될 것이다. 신성한 요소를 달콤하고도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감사하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송하고, 말씀의 시를 읊으며, 말씀을 통해 감사한다면 교회 생활은 크게 높여질 것이다.

이것은 솔직한 말이다. 다음의 서너가지 것들만이 말할 가치가 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그분을 살기를 원하신다. 둘째, 그분은 그 영이시다. 세째, 그분은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시와 감사로 말씀과 그 영을 통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다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신성한 요소와 빛과 생명과 사랑과 거룩케 하심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신성한 것들을 주입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것은 말씀을 참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다만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는 것이나 깊은 이해를 갖는 것만이 아니다.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최상의 길은 찬송하는 것이다. 더 깊은 묵상은 시를 읊는 것이다. 시를 읊는 것은 찬송하는 것보다 더 깊은 누림을 여러분에게 주기까지 한다. 감사는 일종의 결론으로 여기질 수 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며, 찬송해야 하며, 시를 읊어야 하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삶

우리가 하루 종일 내내 이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연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찬송하는 것과 말씀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시로 읊는 것과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것이 중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삼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주입되고 적셔지고 심지어 침투되기까지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과 한 영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분으로 주입되고 침투될 때 여러분은 사실상 그분과 하나이며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분과 한 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는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하며,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아닌 그분이다. 여러분은 그분으로 완전히 적셔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 그분은 여러분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용어들이 뜻하는 바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들이 단지 용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단어들은 무슨 뜻인가? 수년 동안 나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고심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실행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실제적인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낱 표현이나 용어만이 아닌 실제적인 체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을 누릴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분을 살게 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17 장)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가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더 전진된 단계, 곧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다. 내가 무척 추구하고 있었을 당시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면 찾을 것이라는 (마 7:7) 그분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다. 최근에 나는 그리스도를 사는 첫번째 길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둘째로, 나는 또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일종의 호흡하는 기도를 실행해야 함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호흡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

넷째로, 나는 또한 우리가 단지 읽거나 기도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노래하고 시를 읊고 감사함으로써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교통하였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학자나 학생처럼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말씀을 기도로 읽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는 방법을 가져다 주리라 믿는다. 비록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체험이 제한되고 낮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시를 읊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실제로 살아 계신 분과 하나라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된다. 그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내적 존재 안으로 얼마의 신선한 공기를 얻게 된다. 날마다 나는 걷는 것이든 혹, 이것 저것을 하는 것이든 약 한 시간 정도의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잘 잘 수가 없다. 그러나 운동을 함으로써 나는 호흡하는데 그것은 다시 나를 신선케 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말씀을 노래할 때, 말씀을 시로 읊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은 내적 존재 안으로 신선한 공기를 얻게 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1 권, "온전케 하는 훈련" 17 장)

말씀과 그 영

골로새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3:17) 라고 말한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 당신은 그분이 되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당신이 된다. 만일 당신이 그분과 하나가 아니라면 어떻게 당신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행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지만 그분과 하나가 아니라면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하나가 아니면서도 내 이름으로 행세 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내가 된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더라도, 당신은 내 이름 안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 이것이 나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는 길은 당신 자신을 온 종일 말씀 안으로 찬송과 찬양과 시를 읊음 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이 연결 안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온 종일 당신은 기도로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노래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 기도로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당신은 말씀을 노래해야 한다.

시편은 주로 말하기나 읽기 위하여 쓰여지지 않았고, 읊고 노래하기 위하여 쓰여졌다. 우리가 시편 119 편을 읽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편을 온 종일 부르면서 시를 읊는다면 이 시가는 우리를 연결됨 안에 있게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늘에 속한 전류가 온종일 당신을 통과할 것이다. 전기 기구는 전기를 산다.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움직이든지, 그것은 전기를 행한다.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 우리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고, 집에 머물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정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는 많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여전히 우리는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일을 하면서도 숨을 쉰다. 우리는 이러한 숨쉬는 습관을 형성해야만 한다. 우리는 분명한 이상이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생활을 정죄해야 하며, 시를 읊지 않는 생활을 정죄해야 한다. 우리는 온종일 기도와 찬양과 시가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안테나 선인 그 영을 가지고 있으며 접지선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 안테나 선은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접지선은 우리 손에 있다. 우리는 이 두 선을 가지고서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옮겨 부음과 전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스며듦과 적셔 짐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것은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니다. 이것은 약간의 지침이 있는 작은 이상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매일의 실행에 달려 있다.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찬양과 끊임없는 시와 찬미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호흡하며 그분으로 흠뻑 적셔지며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이것은 교리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실행이다. 이 외의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라이프-스터디 메시지와 심지어 성경 연구도 헛된 것이다. 성경이 당신을 죽이는 사망의 문자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성경은 당신이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찬양하며 그것을 노래로 읽으며 그것을 시로 읽을 때 당신을 살게 한다. 거룩한 말씀의 모든 구절은 당신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뉴마(pneuma)'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을 당신에게 만유가 되게 하며 당신을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전달과 옮겨 부음과 적셔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0, 1 권, "온전케하는 훈련" 16 장)

노래함으로 말씀으로 적셔짐

우리가 진정으로 산 말씀으로 적셔져 그리스도를 살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골로새서 3 장 16 절에 있는 바울에 의해 추천된 실행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생각으로부터 오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래하는 것과 찬미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지혜에 의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풍성한 방법으로 우리에게서 사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미해야 한다! 말씀을 노래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보다 나으며, 말씀을 찬미하는 것은 말씀을 노래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찬미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누리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말씀을 찬미할 때, 우리는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누림으로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적실 기회를 더욱 갖게 한다.

만일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읽는 부분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와 우리의 존재를 적실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고 특히 그것을 찬미한다면 우리는 말씀에게 보다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열어줄 것이며,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우리를 적실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시편 1 편을 노래한다면 이 짧은 시편에서 발견되는 풍성들을 누릴 것이다. 단지 집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미하지 말자. 우리의 온 존재로 말씀을 노래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매일 말씀을 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미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훈련하자.

더우기 나는 이제부터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데에 좀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바란다. 아마 어떤 집회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전체를 노래하거나 찬미하게 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만일 우리가 온 집회를 이것을 하는데 소비한다면 이 서신 안에 있는 풍성들을 접촉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3 장 16 절에서 바울이 읽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놀랄 만하다. 그대신 그는 노래하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접촉함이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미함으로 우리는 그 영 안으로 안내된다.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요소로 적셔지는 최선의 길은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0)

기도하고,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주입되고, 그분으로 침투되며, 그분과 연합된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말씀의 어떤 부분은 누리고 있을 때 자연히 우리 속에서 노래 곡조가 흘러나옴을 간증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그 말씀을 노래하기 위하여 이 노래 곡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노래함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적셔지며 그 풍성으로 양육받는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참으로 하나이다. 우리가 말이나 일에 있어 행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말씀과 넘치는 영과 끊임없는 기도를 결합할 것을 권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읽음으로 취할 뿐 아니라 또한 기도로 읽고 노래로 읽음으로 취하라.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풍성한 말씀과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끊임없는 기도로 결합하라. 그럴 때 당신은 주님을 누릴 것이고, 그분께 참여할 것이며, 그분과 하나 될 것이며, 그분을 살 것이며, 그분 안에서 자랄 것이고, 그분을 확대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갈망하시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에서 제시된 것을 실행하는 데 깊은 인상을 받기를 바란다. 천연적이고 인간적인 관념에 따라 기도하지 말라. 그대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당신의 영을 사용하라.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은 당신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풍성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말씀이 당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럴 때 이 모든 풍성들은 당신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이 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주님을 누릴 것이며, 주님과 하나될 것이고, 그분을 살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티, 37 장)

추가로 읽을 말씀

1. 온전케 하는 훈련, 16, 17 장
2.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37, 40, 46 장
3. 건강한 말씀, 8 장
4.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58 장